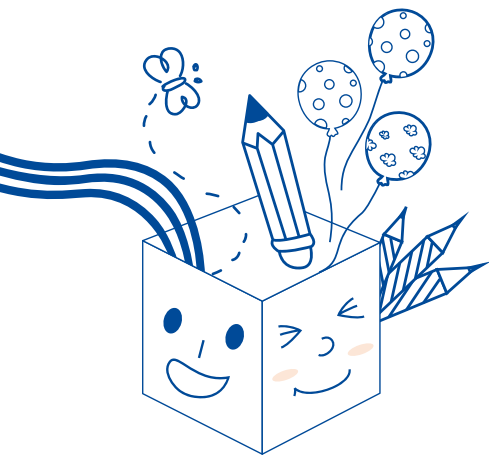


언론중재 위원회에서의 하루

— 인턴십프로그램을
마치며 —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필자를 비롯해 언론에 관심이 있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프로그램(현 청소년언론중재스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턴십프로그램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인데, 우리가 참여한 것은 종일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6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은 모두 잘 참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강사님께서 ‘언론의 기본 이해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강사님께서 플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인 ‘프로퍼블리카’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는데, 프로퍼블리카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사로서 독자들의 신뢰를 추구했다고 한다. 이 언론사는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무료로 신속하게 도와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서, 이런 기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셨다.

인턴십프로그램의 기본 강의를 들은 후 모의조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6명의 학생들이 대표로 ‘치맥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조정인, 언론사, 신청인 역할을 맡아 조정심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며 모의조정을 이끌었다.

내가 가장 재밌었던 프로그램은 기사심의 체험이었다. 모의 시정권고 실습으로 문제가 있는 기사를 찾아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직접 써보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과정이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보며 잘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는 도전 골든벨도 해보고, 심리실 견학도 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님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해 언론과 인격권 보호, 언론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언론인에 대한 꿈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판단력, 올바르게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춘 훌륭한 언론인이 되고 싶다.

